

제10대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위원회/여성자치연합

발신 : 10대 총여 건준위

날짜 : 97/1/13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제10대총여건준위/여성자치연합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1997년 1월 31일로 제9대 총여학생회의 임기가 끝나며, 제10대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위원회가 뒤를 이어갑니다.

발족은 개강 후에 갖기로 했습니다.

I

1. 조직의 내용으로서의 '총여건준위', 조직의 형태로서의 '여성자치연합'

작년에 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9대 총여학생회와의 합의 아래 제10대 총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

총여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후보가 없다는 것은 연세대학교 내에서 여성운동에 관한 관심이 부진하기 때문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총여학생회가 재생산의 진통을 겪은 것은 연세대학교가 유난히 가부장적이기 때문도 아니며 또한 여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총여학생회가 고정된 틀을 깨지 못하고 '여성운동을 하는 기구로서의 총여', 그리고 '학생회로서의 총여'라는 사실상 상반된 두 가지의 역할을 모두 하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진통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 여성운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여성자치연합'을 형성하게 된 것이며 또한 총여의 공백을 채우고 총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제10대 총여학생회 건준위'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여성문제란, 여성이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사회의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가부장제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가족에서부터 학교와 직장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여성은 이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성문제를 하나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여성문제를 상당히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며 오히려 가부장적 기제들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여성문제를 바라보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항적 실천들을 해왔는데, 이러한 목소리들이 숨겨져 있었다. 학내에서 이 목소리들이 뚫고 나올 통로가 부재했던 것도 있었지만, 또한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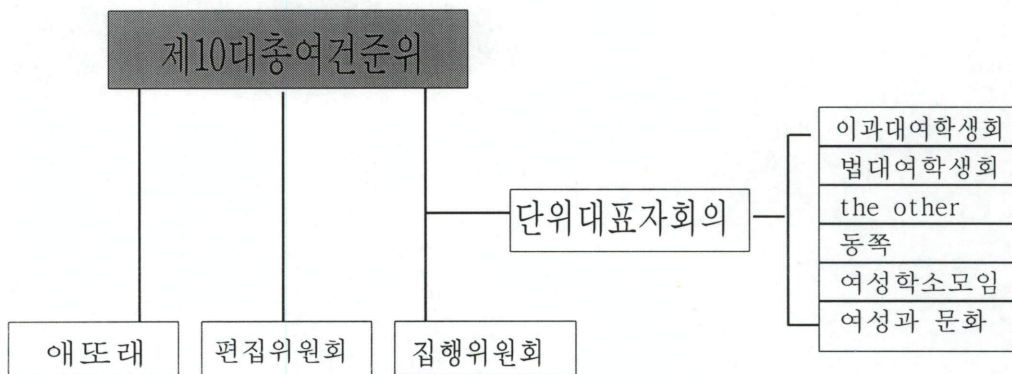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겨져 있는 것을 거부하며 또한 서로를 억압하는 것도 거부한다.

이제 우리는 연대를 하여 진정한 여성주의적 권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여학생회가 가지던 유의미성은 있다. 단지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 유의미성이 획득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만약 여성운동이 부르조아적 가부장적 공/사의 분리를 타파하는 운동이라면,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일상에서부터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밑에서부터 건설되어 올라가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위에 '떠있는'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0대 총여건준위는 단순히 총여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꾸려진 '임시비상대책위'가 아니다. 보다 총여학생회가 발전된 모습으로 연세대학교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다. 1년 동안 총여가 기존에 하던 일들을 이어나가고 또한 총여가 갖던 한계점들도 뛰어넘는 것이 이번 건준위의 설립 이유이자 목표이다.

II. 제10대 총여건준위/여성자치연합 조직체계



- 연세대학교 내 여성/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2인 이상)은 총여건준위/여성자치연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위대표자회의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모든 명칭은 '제10대총여건준위/여성자치연합'으로 한다. 뒤에 '여성자치연합'을 붙이는 이유는 총여건준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적절한 시기(2학기)에 '건준위'로만 명칭을 줄이기로 한다.

단위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여성자치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 단위 대표들로 구성된다. 단위대표자회의에서 모든 의결사항이 이루어진다. 단위대표자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집행위원회는 단위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집행위원회의 내부 체계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독자적인 편집활동을 한다. 기존의 '연세여성'이 아닌, 고대의 [석순]이나 성대의 [정정현]과 같은 월간 혹은 계간 교지의 형태가 될 수 있다. 편집활동의

구체적인 상은 2월 경에 나올 예정이다.

예포레는 기존 총여학생회의 탁아분과였으나 독립해서 활동했으며, 건준위에서도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 단, 총회에 참석해 예산문제 등은 함께 논의한다.

III. 토론

제10대 총여학생회가 성공적으로 1년 동안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총학생회 선거 시기에 많이 나왔던 논의이지만, 연세대학교 내에서 변혁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의제를 통한 학생회가 유일한 정치적 실천¹⁾을 하는 조직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여성운동에 있어서는 더 더욱 그렇다. 여성운동은 하나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이번 제10대 총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는 총여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총여학생회를 기존의 학생회와 다른 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다. 1년 동안 새로운 형식으로 여성운동의 가능성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정식적 '학생회가 아니다'라는 부정성에 기초한다기보다 '새로운 정치적 질서의 실험이다'라는 긍정성에 초점이 맞춰질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제10대 총여학생회건설준비위원회는 기존에 어떠한 총여보다도 더욱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건준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며, 선거를 통한 정당성을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1년 간의 활동을 통해 그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실천이란, 학내 활동('복지'라고 불리는 것들)까지도 의미한다.